

『서양기문西洋紀聞』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저, 이윤지 역주, 세창출판사, 2021

오지석*

I

이 글은 일본 난학(蘭學)의 선구자로 알려진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의 『西洋紀聞』을 이윤지 박사가 역주한 것을 읽으면서 만난 근대이전 서양과의 만남, 서양이해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일본 서양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하쿠세키와 이탈리아인 선교사 시도티(Giovanni Battista Sidotti, 1668~1714)이다. 먼저 하쿠세키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일본에 서양정보를 제공하는 인물 시도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아라이 하쿠세키는 에도시대(江戶時代) 중기의 지식인(유학자)이며 정치가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쇼토쿠(正德)의 치’시대라 불리는 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宜)와 7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구(德川家継) 치하에서 문치주의 체제의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이에쓰구가 요절하자 물러나 집필활동에 전념하였다. 하쿠세키는 비교적 조선지식인 사회에는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682년 조선통신사의 제술관이었던 성완을 만나 자신의 시집 『陶情集』의 서序를 청하였고, 1711년 조선통신사와 만났고 이때 조선통신사 접대 체도의 간소화를 단행하여 조선에는 외교마찰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 흔적을 이덕무의 『蜻蛉國志』 인물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덕무는 하쿠세키를 ‘재주는 있으나 경박하여 스승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조교수

의 학설을 준수하되 자기를 뽐내고 남에게 오만하였는데 역시 버림받아서 죽었다'라고 평하였다. 동시에 하쿠세키는 일본의 지식인으로서 그의 문장이나 주자학적 교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외국 사절등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특기할 만한 상황으로 1709년 11월~12월 4회에 걸쳐 선교사 시도티를 심문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57세가 되던 1713년 6월 시도티를 심문한 경험을 토대로 서양 지리서 『채람이언 采覽異言』을 집필하였고 1715년 본격적인 서양 연구서 『서양기문』을 집필하였다. 그는 에도 시대 각 다이묘(大名) 가문의 계보를 정리한 『번한보 藩翰譜』, 무가 정권의 연혁 및 일본 고대사를 검토한 사론서史論書로 『讀史余論』, 『고사통古史通』과, 한시집 『하쿠세키 시초白石詩草』, 『하쿠세키 선생 여고 白石先生余稿』, 자전적 성격의 수필 『오리타쿠시바노키折たく柴の記』를 남겼다.

『서양기문』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이 앞에서 언급한 이탈리아인 선교사 시도티(Giovanni Battista Sidotti, 1668~1714)이다. 그가 주목 받은 이유는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명에 따라 쇄국하 일본에 상륙한 최후의 선교사이자 기리시탄 저택의 마지막 수감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1708년 8월 야쿠시마(屋久島)에 도착하였으나 상륙 후 바로 체포되어 나가사키(長崎)로 이송되었고, 1709년 에도로 호송되어 도항 목적에 대한 심문을 하쿠세키에게 받았다. 그는 1714년 10월 에도에서 옥사하였다. 나가사키 부교쇼(長崎奉行所)가 막부에 보낸 『나가사키에서 상신한 로마 사람에 관한 보고』와 『서양기문』 하권 ‘시도티의 신상’은 시도티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나가사키에서 뿐만 아니라 에도로 이송되어 하쿠세키의 심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여 의도치 않게 쇄국鎖國의 세상이었던 일본에 객관적인 서양연구의 출발에 일조하였다.

II

『서양기문』은 에도시대, 쇄국하의 일본에 도하한 가톨릭 선교사 조반

니 바티스타 시도티를 1709년 이에노부의 명에 의해 당대 고명한 주자학자이자 막부의 고문인 하쿠세키가 심문하면서 쇄국이라는 환경에서 서양을 냉철한 판단력으로 빚어낸 난학의 선구이며 서양 연구서의 효시이다. 이 책은 상·중·하권 그리고 부록으로 『나가사키에서 상신한 로마 사람에 관한 보고』를 수록하고 있다.

상권에서는 시도티의 잠입사건과 취조를 담당하게 된 경위, 시도티에 대한 관찰과 문답 상황 등이 기술되어 있고, 중권과 하권에 비하여 분량 및 서양 관련 내용이 적다. 시도티에 대한 인상 및 서양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경탄하지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부록으로 시도티 상륙 전후 사정에 관하여 나가사키 부교쇼에서 보고한 내용을 요약 첨부하고 있다.

중권 전반부는 세계 지리의 개략 및 유럽 주요 국가를 소개하면서 시칠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카스티야,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반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등지의 유럽 식민지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에서는 페르시아, 시암, 자카르타, 루손(필리핀)등과의 관계가 서술되어 있다. 역주자는 이 중반부를 시도티의 구술 외에도 통역을 한 네덜란드인의 설명, 중국 및 유럽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주세페 키아라와 같은 서양 선교사가 집필한 서적등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저술한 것이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7세기 예수회 신부 줄리오 알레니가 중국에서 저술한 세계지리서인 『職方外紀』와 18세기 조선 지식인이 『직방외기』를 전통적인 중화주의의 입장에서 비판한 신후담의 『서학변(西學辨)』 가운데 「직방외기」비판이다. 달리 말하자면 『직방외기』가 서양인에 의해 저술된 지리서라고 한다면 하쿠세키의 『서양기문』 중권은 서양인과의 직접 만남과 축적된 사료에 의한 지리서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신후담의 『서학변』 「직방외기」는 벽위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해금(海禁)·쇄국(鎖國)의 아래서 다른 세상(서양)을 바라보는 시선의 다르면서도 같은 면을 알 수 있다.

하권은 시도티의 신상 및 야쿠시마(屋久島)에 상륙한 경위, 서양 각국

의 식민지 건설과 선교 상황, 성서의 주요내용과 기독교 교리, 교회사, 로마 가톨릭의 직제에 관련된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마지막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벽사집』 등 17세기 중국의 반기독교 문헌을 참고하여 불교와의 유사점을 두고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부록 『나가사키에서 상신한 로마 사람에 관한 보고(長崎注進羅馬人事)』에는 「나가사키 부교쇼 상신- 이국인 취조 문서」와 「이국인이 소지한 큰 행낭에 들어 있던 각종 물품에 대한 기록(異國人致所持候大袋之内諸色覺)」이 있다. 이것은 하쿠세기가 옮겨 적어 수록한 것이다.

하쿠세기는 『서양기문』을 통해 서양에 대한 일차적 정보습득을 서술하지 않고 서양의 발전상,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개방적 태도를 보이지만 시도티가 심문을 통해서라도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그들의 학문은 단지 그 형태와 그릇에 정통할 뿐이며, 소위 형이하학만 알고 형이상학에 대한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 이런 생각은 메이지 시대의 근대전환과정에서 주창한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이 책은 쇄국을 표방한 에도 중기에는 ‘위험’한 문서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아라이家에 자필본이 전해 내려왔고, 1713년 7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구(德川家繼)의 해외사정 이해를 위해 이 책 가운데 중권 내용을 중심으로 쇄국정책에 어긋나지 않게 편집 정리하여 『채람이언(采覽異言)』로 먼저 내놓았다. 그의 사후인 1793년 막부의 명에 의해 하쿠세키의 후손 시게요시(成美)가 『서양기문』을 헌상하기도 한다. 이 책의 제목의 일부로 사용된 ‘西洋’, 서양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첫 예로 보고 있다.

이 책은 일본 국내 출판보다도 외국인에 의해 번역 출판이 앞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서양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막부에서 엄금

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언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쇄국 체제 하에서는 간행은 꿈꾸지도 못하고 유출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19세기 전반에 유포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알려지게 된 것은 1865년 미국 개신교 선교사 새뮤얼 롤린스 브라운(Samuel Rollins Brown)의 최초 영문번역과 1881년, 1888년 영국 성공회 해외복음전파회 신부 W. R. 라이트(W. R. Wright)가 이 책의 상권 및 부록을 번역 그 내용의 개략을 소개한 것이다. 19세기 영미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18세기 가톨릭 신부와 심문과 답변에 기초한 『서양기문』을 일본인들보다 먼저 주목한 이유를 뭘까? 역자가 말하는 것처럼 19세기 영미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종교적 의도를 고려할지라도 시대와 상황을 불문한 저자의 탁월한 식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와 서양의 만남의 유형을 서학西學, 난학蘭學, 조선서학朝鮮西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의 난학의 특성과 다른 서학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또한 일본 에도 시대 일본인에 의한 서양인식의 선구적 모델이며,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 등의 저술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일본 근대전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의 생각에 자리잡은 ‘동양도덕, 서양기술’라는 생각의 원형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료다.